

# 첨단 CT 기술로 지역 콘텐츠 경쟁력 ↑

# 여름철 비브리오패혈증 주의 당부

### 전북도, 지역 연계 첨단 CT실증사업 공모 선정... 고창 모양성제 전통·문화기술 융합된 글로벌 축제 도모

전북도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지역 연계 첨단 CT실증(R&D)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문체부의 지역연계 첨단 CT(Culture Technology)실증사업은 지역 공공 문화 공간에 첨단 문화기술을 접목하고 사업화해 지역 콘텐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2개 분야(지역소재 공원, 지자체 주관 지역축제)를 공모했다.

도는 고창읍성에서 열리는 모양성 축제에 첨단화된 문화기술과 수요자 중심의 실감콘텐츠 서비스 등을 연계하기 위해 지역축제 분야에 응모, 선

정되는 패거리를 얻었다.

2023년까지 3년간 총 87.8억 원(국비 48, 도비 17, 군비 17, 민간 5.8)이 투입되는 본 사업은 전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과 함께 지역콘텐츠개발 전문기업,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RI)이 컨소시엄을 이뤄 오는 6월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코로나19와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 등으로 지역축제가 축소되고, 첨단CT 기술을 통한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차별화된 미래형 축제가 필요한 시점에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지역 축제는 일반적인 쇼케이스나

정보 전달이 아닌 관람자가 직접 관찰하고 느끼는 콘텐츠, 직접적인 참여 행동과 작동을 통해 경험하는 공간을 구현함으로써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람자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형태로 변하고 있다.

이번 공모선정으로 지역축제에 인터랙티브 기술, 키네틱 자이언트 오토마타 연출 작동 및 구동 기술, 공중 스크린을 활용한 실시간 프로젝트 맵핑 기술 등을 도입한다.

이에 미래지향적 첨단 축제 공간에서 AR 기술, 다양한 음향장비와 투명 디스플레이, 첨단 미디어 장치와 영상 등을 통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하

도록 실감 체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본 과제를 추진하며 해외 기술과 장비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해 문화기술 개발, 초실감 콘텐츠 구현 등에 요구되는 첨단기술 국산화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윤여일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첨단 CT 기술 개발과 실증을 통해 고창 모양성제가 전통과 문화기술이 융합된 글로벌 지역축제로 거듭나고, 성공적인 첨단 축제 실증과 기술 사업화를 통해 지역 콘텐츠업체의 경쟁력 또한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기자

### 서해안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6~9월 어패류 충분히 익혀 섭취해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지난 31일 비브리오패혈증균(Vibrio vulnificus)이 올해 들어 도내에서 처음으로 검출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다.

연구원은 도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비브리오패혈증 유행예측 조사를 하는데, 지난 5월 24일 채취한 해수와 갯벌에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분리됐다고 밝혔다.

이 균은 해수 온도가 18℃ 이상에서 군 활성도가 높아지며, 여름철에 해수, 갯벌, 어패류에서 주로 검출되는 호염성세균이다.

비브리오패혈증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5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중 30~50%가 사망하는 치사율이 높은 3급 법정감염병이다.

또한, 간질환 환자, 당뇨병 등 저항력이 약한 만성질환자들이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피부 상처를 통해 감염·발병하면, 치명률이 매우 높아진다.

증상은 평균 1~2일의 짧은 잠복기를 거쳐 급성발열, 오한, 구토, 전신쇠약감, 설사, 하지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한 출혈 및 흉반, 수포, 괴사 등 피부병변이 발생하고 조기진단 및 신속한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 예방을 위해서는 6~9월 사이에 어패류의 생식을 피하고,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또한, 어패류의 보관은 5℃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가급적 85℃ 이상으로 가열처리 후 섭취하는 게 좋다.

어패류를 요리한 갈과 도마 등은 소독 후 사용하고 피부에 난 상처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므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바닷물에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유호상기자

## 전북도, '안심식당' 추가 모집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 이행

전북도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안심식당'을 추가로 모집한다.

도는 지난 31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4가지 생활방역 실천과제를 이행하는 일반 및 휴게음식점 중 식사류를 취급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안심식당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기준, 도내 안심식당은 1,119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안심식당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인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손씻기 시설 또는 손소독 장치(용품)를 갖춰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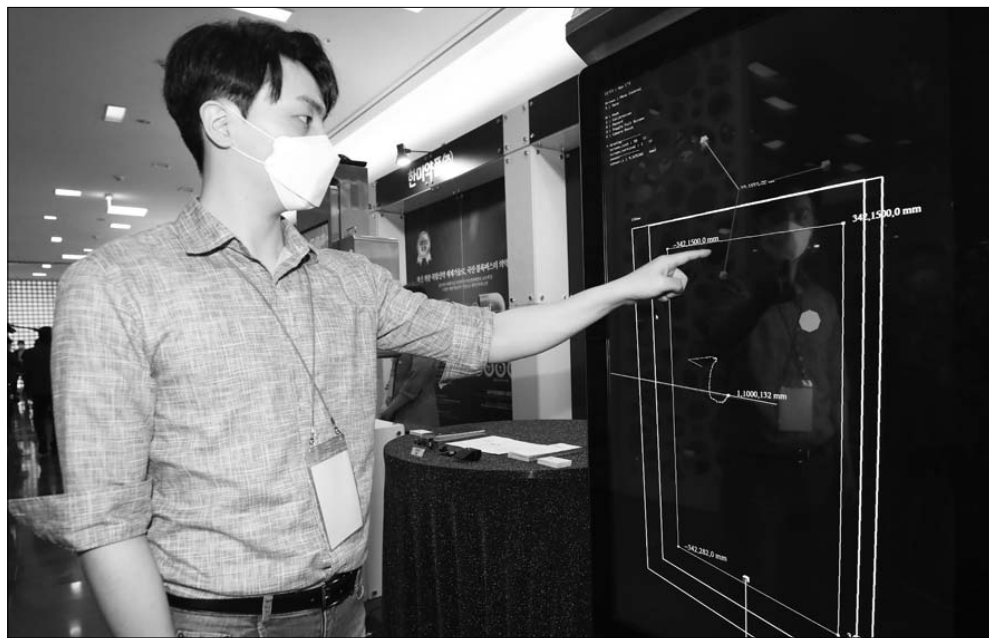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업소 전면에 안심식당 인증 스티커 부착, 19만 원 상당의 식문화 개선 물품 지원, 도·시군 누리집 및 SNS 등을 통해 홍보된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안심식당 정보를 매주 공공데이터로 업데이트해 온라인 포털(네이버·다음), T맵, 카카오맵 등에 표출하는 등 홍보를 통해 안심식당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정책관은 "안심식당 적격 지정·운영 및 음식점 시설개선지원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하고 도내 외식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며 "도내 음식점들이 안심식당 지정신청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안심식당 지정에 희망하는 업소는 시·군 위생부서로 문의한 후 현장 확인을 통해 지정 받게 된다.

/유호상기자



발명의 날 기념식, 비접촉 터치 기술

지난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6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관계자가 가상터치(비접촉 터치 기술)를 선보이고 있다.

## 전북연구원, '도민 정책 모니터링단' 모집

전북연구원(원장 권혁남)이 정책개발 과정에서 도정 발전을 위해 지혜를 더할 모니터링단을 구성한다.

지난 31일 전북연구원은 도민과 함께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도민 정책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도정에 관심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6월 한 달 동안 전북연구원 홈페이지 연구원소식내 공지사항과 전화를 통해 모니터링

단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위한 전화번호는 063-280-7180이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시·군과 성, 연령을 고려GO 500명 규모로 구성될 예정이다.

모니터링단으로 선정된 도민은 정책연구 수행과정에서 정책 제언과 정책평가 등에 참여,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정책개발에 참여하게 된다.

정책연구에 참여한 모니터링단은 다

양한 기프트콘과 수당 등을 지급받게 된다.

또한, 모니터링단은 연구원 자료 및 도서관 무료이용과 회의실 무료대여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 받게 된다.

권혁남 원장은 "연구원이 개발한 모든 정책의 최종 수혜자가 도민이기 때문에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한다"며 "연구원과 도민 간의 소통과 스نippet을 강화하기 위해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호상기자

## 도내 분쇄가공육 '모두 적합'

### 도 동물위생시험소, 식육가공업체 15개소 38개 품목 수거검사

전북도가 어린이들이 선호하고 학교 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분쇄가공육 제품 관련 안전성 강화를 위한 수거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지난 5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 동안 도내 분쇄가공육을 생산하는 식육가공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38개 품목을 직접 수거해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분쇄가공육이란 식육을 세절 또는 분쇄해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첨가·혼합해 가공한 것으로 돈가스, 동그랑땡, 미트볼(고기완자), 떡갈비 등을 말한다.

이번 검사는 이른바 '햄버거병'의 원인균으로 지목되고 있는 장출혈성대장균을 비롯한 가공품의 붉은빛을

내게 하는 발색제, 제품 보존기간 연장을 위한 보존료, 합성색소인 타르색소 잔류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됐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이번 검사 결과를 통해 분쇄가공육제품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제품의 검사 이외에 적절한 원료육 사용 여부, 분쇄가공육의 자가품질검사 여부, 제조공정의 위해요소 및 제품 보관기준 준수 여부, 종업원 위생교육 실시 여부 등도 함께 조사했다.

이성재 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시기별로 식품 사고가 우려되는 축산물을 집중 점검해 지역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기자

## 임실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 연대 가입... 정책 발굴·추진

임실군이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 극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 대응과 협력을 추진하고자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에 가입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

지와 실천력을 결집하고자 지난해 7월 발족한 지방정부 협의체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사업 발굴·추진 등을 지원한다.

군은 이번 실천연대 가입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방안으로 에너지 지원과, 저탄소 생활 실천지원, 자원재순환 체계구축, 녹색도시 인프라 조성 등 다양한 정책발굴에 나설 계획이다.

/임실=진홍영기자

고창군 공고 제2021-989호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공고**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원, 도로) 결정(변경) 및 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고창 군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 공원, 도로) 결정(변경)」
  - 나. 위 치: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용계리 산22-1번지 일원
  - 다. 면 적: 180,125㎡
  - 1) 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조서 및 사유서: 실용생략
  - 2) 군계획시설(공원, 도로) 결정(안) 조서 및 사유서: 실용생략
  - 3) 군계획시설(역사공원) 조성계획 결정(안) 조서: 실용생략
2. 주민공람 기간 및 장소
  - 가. 공람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공휴일 포함)
  - 나. 공람장소: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건설도시과
3. 주민의견제출
  - 가. 제출기간: 공람기간내
  - 나.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공람의견서에 의한 서면제출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www.eia.go.kr)에 의견등록
  - 다. 제출장소: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 건설도시과
4. 관련도서: 실용 생략 (공람장소에 비치)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창군청 문화유산관광과(063-560-2955) 및 건설도시과(063-560-2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1일 고창군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http://www.jjmaeil.com)